

《대동지지》의 구성체계의 특징

한 명 길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선조들이 이룩해놓은 민족문화유산은 우리 나라의 력사와 문화를 대를 이어 전해가면서 인민들을 애국주의사상으로 교양하고 민족적금지과 자부심을 북돋아주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집니다.》(《김정일전집》 제2권 100~101페이지)

《대동지지》는 조선봉건왕조말기인 19세기 중엽에 생존한 진보적인 지리학자의 한사람이었던 김정호가 1864년에 편찬한 전국적지리문헌이다.

《대동지지》는 자연지리, 경제지리, 력사지리 등 여러 분야의 내용들을 포괄적으로 반영한 《동국여지승람》과 그후 널리 편찬된 각 고을의 읍지들을 참고하고 수십년동안 현지에서 조사장악한 자료들을 종합체계화하여 편찬되였는데 그 구성체계와 서술방법에서 일련의 특징을 가진다.

《대동지지》의 구성체계에서 특징적인것은 무엇보다먼저 전국적인 지리지로서의 특성을 살려 구성체계를 정연하게 갖추고있는것이다.

《대동지지》(전32권)의 구성체계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수 있다.

첫째 부분인 1권으로부터 24권까지에서는 종전의 지리문헌들처럼 우리 나라의 전령역에 대하여 도와 고을별로 나누어 일정한 항목을 설정하고 서술하였다.

둘째 부분인 25권부터 32권까지에서는 지리문헌에서 반드시 언급해야 할 내용들을 부분별로 종합하여 해설하였다.

여기에는 《산수고》와 《변방고》, 《정리고》, 《력대지》 등이 포함되어있다.

《산수고》는 자연지리적인 대상에 대하여 서술한것이고 《변방고》는 우리 나라 국경지역에 대한 자료를 서술한것이며 《정리고》는 전국적인 도로망을 해설한것이다.

《력대지》는 《방여총지》라고도 하는데 우리 나라의 력사지리를 개괄한 부분이다.

《대동지지》의 구성체계는 여러 분야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반영하면서도 일부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대상에 대하여서는 구체적으로 서술할수 있는 우점을 가지고있다.

《대동지지》는 첫머리에 총목록과 함께 《문목》을 주었으며 참고한 문헌들의 목록을 제시하였다. 《문목》은 《연혁》, 《고읍》, 《방면》, 《산수》, 《형승》 등 모두 22개의 항목으로 구성되어있으며 여기에서는 《대동지지》에서 서술하려는 내용들을 총괄적으로 해설하였다.

실례로 《연혁》의 항목에 대한 기록을 보면 우리 나라의 력대 군현제도와 그 변천관계 그에 따르는 고을이름 및 경계의 이동과정 등을 반영하고있다. 즉 《문목》은 《대동지지》를 편찬하면서 장악된 당시의 우리 나라 전체 령역에 대한 자료를 고을별로 해설한것이며 여기에는 해당 지역의 행정소속관계로부터 력사, 자연, 경제, 교통운수, 문화유적 등이 전반적으로 포괄되어있다.

조선봉건왕조시기 한성을 제외한 나머지 전국의 군, 현들은 모두 이와 같이 22개의 항목을 해설한 《문목》에 따라 내용이 배열되어있었다.

《문목》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면 고을의 설치 및 변천과정을 서술한 《연혁》과 옛 고

을의 이름을 제시한 《고읍》, 해당 고읍에 소속된 동과 리들을 소개한 《방면》 등은 해당 지역의 역사지리를 서술한 항목들이다.

여기에서는 고조선시기부터 조선봉건왕조후반기에 이르기까지 해당 고읍의 설치, 변천 과정을 설명하면서 고읍의 변천리유와 그에 소속된 지역의 역사적변천 그리고 해당 고읍의 이름이 시대에 따라 어떻게 달리 불리워져왔는가에 대하여 상세히 기록하였다.

해당 고읍안의 산과 강을 기록한 《산수》, 지형을 소개한 《형승》 등은 자연지리적내용을 서술한 항목이다. 여기에서는 해당 고읍의 지형과 지세, 자연지리적대상물들인 산과 고개, 봉우리, 동굴, 벼랑, 큰 바위, 언덕, 들판, 숲, 골짜기, 백사장, 강, 여울, 못, 꽃, 나무, 섬, 바다, 샘, 폭포와 언제 등을 구체적으로 수록하였다. 성과 해자를 설명한 《성지》, 감영, 병마절도사영, 수군절도사영을 소개한 《영아》, 변방의 군사시설물들과 그 관리정형을 설명한 《진보》, 봉수체계를 기록한 《봉수》와 역들의 소속관계를 해설한 《역참》 등은 군사지리관계의 내용을 해설한 항목들이다. 《창고》와 해당 지역의 특산물을 소개한 《토산》, 소와 말을 기르는 목장을 지적한 《목장》, 나무터와 다리를 기록한 《진도》, 《교량》 등의 항목은 경제지리와 교통운수지리관계의 자료들을 서술한 항목들이다. 그리고 해당 고읍안에 있는 행궁을 기록한 《궁실》, 루대와 정자를 소개한 《루정》, 종교와 미신행위를 벌리던 시설을 밝힌 《묘전》, 《단유》, 역대 왕들과 왕족들을 장사지내던 무덤을 해설한 《릉침》, 서원과 사당들을 소개한 《사원》, 해당 지방의 역사적사건과 사실들을 수록한 《전고》 등은 지방의 문화유물과 역사유적을 해설한 항목들로서 지역안의 역사와 문화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수 있게 하였다.

이처럼 《문목》은 전국적이면서도 종합적인 지리문헌인 《대동지지》의 서술내용을 종합적으로 보여주는것이며 또 첫 부분의 구성체계를 밝힌것이다.

《대동지지》는 《문목》 다음에 《인용서목》을 주고 참고한 문헌들의 목록을 밝혀주었다.

《인용서목》에는 《대동지지》가 편찬될 때 리용하던 국내외의 문헌 65종이 소개되어있다. 그가운데서 대표적인것만을 실례로 들어보면 《삼국사기》, 《고려사》, 《동국유사》, 《동사강목》 등 역사문헌들과 《신증동국여지승람》, 《택리지》 등 인문지리책과 경제지리책들 그리고 《남한지》, 《송경지》, 《관북지》 등 각 지방들의 읍지들과 《발해고》, 《강역고》, 《동국지리지》 등 역사지리책들을 참고하였으며 《사기》, 《한서》, 《삼국지》, 《후한서》, 《명일통지》, 《판여기》 등 외국의 역사책들, 지리문헌들이 리용되었다.

《대동지지》에서는 조선봉건왕조의 한성을 소개하는데 특별한 힘을 넣었다.

《대동지지》의 첫 권에는 《경도》, 《국조기년》, 《도성》, 《궁궐》, 《제궁》, 《단유》, 《묘전》, 《진전》, 《궁묘》, 《동반부서》, 《서반부서》 등 11개의 항목아래에 당시 한성의 자연과 역사를 개괄하고 조선봉건왕조시기의 역대 왕들과 그들의 사당, 무덤들을 밝혀주었으며 한성에 있던 여러 궁전들과 관청들을 소개하였다.

《대동지지》의 첫 부분의 서술체계는 우리 나라에서 중세 지리문헌편찬의 경험을 따르면서도 그것을 더욱 발전시킨것이라고 말할수 있다.

15세기말에 편찬되고 16세기초에 보충한 지리문헌인 《신증동국여지승람》도 전국을 특별로 나누고 그것을 다시 고읍별로 구분한 다음 일정한 항목아래에 필요한 내용을 서술하였다. 그런데 《대동지지》는 이러한 구성체계를 따르면서도 각 도의 마지막에 도의 실태를 전반적으로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수 있게 부록을 첨부하였다.

《대동지지》의 구성체계의 특징적인것은 다음으로 군사지리와 역사지리의 서술에 힘을

기울이면서 그에 해당하는 항목들은 세분하여 서술하고 그밖의 항목들은 적절하게 조절한 것이다.

16세기초에 편찬된 《신증동국여지승람》과 17세기이후에 나온 지방지인 《전라도읍지》 그리고 《대동지지》의 구성체제에서의 차이는 해당 문헌의 편찬목적과 내용적특성을 보여주는 것인 동시에 《대동지지》의 우점을 보여준다.

《신증동국여지승람》은 지리문헌으로서 담아야 할 내용을 서술하는것보다 이른바 승람으로서의 면모를 갖추는데 더 치중하였다.

그리하여 《제영》이라는 항목아래 서술한 내용이 많은 분량을 차지하며 《성씨》, 《풍속》, 《산천》, 《루관》, 《루정》, 《정자》, 《불우》, 《사묘》, 《고적》, 《명환》, 《인물》, 《렬녀》, 《충의》, 《류의》, 《우거》 등 별로 필요하지 않는 내용을 항목으로 설정하거나 비슷한 대상을 여러가지 항목으로 세분화한 점이 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신증동국여지승람》이 자연풍경이나 고적을 유람하는데 참고가 되도록 하려는데 목적을 두고 편찬한 책이기 때문이다. 한편 《전라도읍지》는 지방의 지리지로서 《신증동국여지승람》의 구성체제를 따르면서도 경제적수탈을 강화하는데 목적을 두고 편찬하였으므로 《토산》, 《전결》, 《공부》, 《환적》, 《진공》, 《창고》, 《장시》 등 경제관계의 항목들을 구체화하였다. 그런데 《대동지지》는 《신증동국여지승람》이나 《전라도읍지》와는 다르게 일정한 교훈과 경험을 주는 역사적사건, 사실을 많이 주면서 특히 군사활동에 참고로 될수 있는 자료들을 수록하기 위한 항목들을 구체적으로 세분화하여놓았다.

그리하여 《산수》항목에서도 유사시에 군사활동을 위해서 요충지들과 지름길, 성을 쌓을만한 곳과 방어하기 편리한 곳을 밝혀서 《령도》라는 작은 항목, 바다에서의 전함들의 활동에 유리한 자연지리적조건을 해설한 《도서》라는 작은 항목을 더 설정해놓았으며 《성지》, 《진보》, 《영아》, 《진도》, 《교량》, 《봉수》, 《역참》 등으로 당시의 군사시설과 기구배치, 통신 연락체계, 도로망 등을 상세히 수록하였다. 이와 반면에 《성씨》, 《풍속》, 《루관》, 《정자》, 《명환》, 《인물》, 《우거》, 《류우》, 《렬녀》, 《제영》과 같은 항목은 없애버리거나 합쳐서 간명하게 서술하였다.

이처럼 《대동지지》의 구성체제는 《신증동국여지승람》이나 그밖의 읍지들의 항목을 그대로 옮겨놓은것이 아니라 국내외의 문헌자료들과 필자가 직접 조사장악한 자료에 기초하여 당시의 형편에서 가장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문이 더 강조되어 새롭게 설정되었다.

《대동지지》의 구성체제에서 특징적인것은 다음으로 후편에 해당하는 《산수고》, 《변방고》, 《정리고》, 《력대지》를 따로 설정함으로써 지난 시기의 지리문헌들에 없는 새로운 항목을 설정한것이다.

《대동지지》에는 우리 나라의 자연지리적대상물들과 국경지방의 방어시설물을 종합적으로 해설한 《산수고》와 《변방고》가 있다.

이것은 나라의 방위력을 강화하여 외래침략자들의 침입을 막자는데 목적을 두고 설정한것이였다.

현재 전해지는 필사본 《대동지지》에는 이 두 편목이 목록에만 있고 원문이 전해지지 않아 그의 전반내용은 잘 알수 없다.

그러나 《동국문헌비고》의 《산수》, 《관방》편과 그밖의 문헌자료들에 근거하여보면 거기에는 우리 나라의 산, 봉우리, 산줄기, 고개, 언덕, 벌판, 강하천, 샘, 폭포 등 자연지리적

대상물들과 여기에 깃든 역사적사실들 그리고 우리 나라의 국경지대의 군사시설들과 그의 변천과정, 나라의 방비를 강화하기 위한 저자의 주장 등이 서술되었을것이다.

《정리교》는 우리 나라의 도로망과 그 거리 그리고 청나라와 일본으로 가는 육로와 수로의 로정과 리수를 밝힌 부분이다.

《대동지지》에는 이러한 내용이 《궐문분로》와 《성문분로》, 《10대로와 제주로》, 《발참》, 《연변해로》, 《제주해로》 등 항목으로 자세히 기록되어있다.

《대동지지》에는 도로망에 대하여 단순히 고장이름과 리수를 기록하는데 그친것이 아니라 해당 지역의 대표적인 지형, 지물과 그것을 지날 때 참고가 될수 있는 여러가지 사항들을 빠짐없이 서술하였다. 이것은 책편집에서 자료수집과 정리에만 그친것이 아니라 실지사람들이 보고 리용하는데 편리하게 하는데 힘을 넣었다는것을 보여준다.

《력대지》는 우리 나라 역사지리를 개괄한 부분이다. 여기에는 고조선으로부터 고려에 이르기까지 역사자료들과 그에 대한 필자의 견해가 첨부되어있다.

《력대지》에서 특히 중요한것은 신라와 고려의 역사지리를 개괄하면서 후기신라시기의 9주와 고려시기의 5도량계에 대하여 지도를 그리고 설명한 부분과 역사에는 이름이 있지만 지리적위치를 고증하기 어려운 고장들은 자료적으로 제시한 부분이다.

이처럼 《대동지지》는 전국적인 범위에서 자연지리적대상물들과 교통운수망, 역사지리적인 내용들을 종합하여 서술하였다.

《대동지지》가 편찬되기 이전에도 개별적인 실학과학자들에 의하여 우리 나라의 지리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으며 그 결과 일정한 문헌들이 편찬간행되었다.

실례로 정약용의 《대동수경》, 신경준의 《도로고》와 《동국문헌비고》의 《산수》, 《관방》 편과 리곤수의 《정리표》, 우하영의 《천일록》에서 《정도》 등을 들수 있다.

이러한 문헌들은 어디까지나 우리 나라 지리학의 한 분야 또는 그 한 부분을 취급한 것에 불과하다. 그러나 《대동지지》는 어느 한 분야의 자료를 종합하여 정리한것이 아니라 자연, 경제, 군사, 역사, 교통운수 등 당시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제기되는 지리학적문제들을 모두 종합하여 체계화하고 그것을 사람들이 필요에 따라 참고리용하도록 서술하였다.

《대동지지》에 반영된 내용도 종전의 지리문헌들과는 다른 점이 있다.

전국적인 지리지인 《세종실록》 지리지나 지방지인 《전라도읍지》를 보면 경제관계자료들로서 자연부원과 물산, 호구와 토지 등을 구체적으로 반영하는데 그치였다. 이것은 지리문헌을 봉건적수탈을 강화하려는데 목적을 두고 편찬하였기때문이다.

그러나 《대동지지》는 경제관계자료를 반영하면서도 나라의 방비를 강화하고 우리 나라의 역사와 문화를 잘 알도록 하는데 이바지하도록 서술하였다.

이처럼 《대동지지》는 우리 나라 전체 영역의 자연, 경제, 군사, 역사와 문화 등 자료들을 종합적으로 서술하면서도 당시의 시대적요구를 반영하여 나라의 방위력을 강화하고 인민들에게 민족적공지와 자부심을 높여주는데 이바지할수 있는 자료를 집중적으로 수록하는 방향에서 내용을 편성하고 구성체계도 특성이 있게 설정하였다.

《대동지지》는 당시의 시대적제약성과 저자의 세계관적제한성으로 하여 일련의 부족점을 가지고있으나 조선봉건왕조시기에 나온 지리문헌들가운데서 비교적 완성된 지리책이라고 할수 있으며 또 여기에 반영된 내용들은 당시의 자연지리와 역사지리, 군사지리 등 부문별지리를 연구하는데 귀중한 자료로 된다.